

제41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박유하

소속: 세종대학교

주제: 한일과거사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2006년 05월 24일 (12 : 00 - 14 : 00)

*강연내용

우선, 한일 간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보면, 2년 전부터 신사참배 문제, 독도문제 등은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대해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한 직후, 한국은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응했다. 일본이 단순한 해양조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해양조사는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일본의 호전적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했다.

EEZ관련협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이것이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치 전쟁을 기대하는 듯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이 나오고, 한일전력비교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 일본영토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인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의 긍정적 관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안부,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양쪽의 견해를 검토해보면, 어느 쪽의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한국땅임을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를 지배한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이해, 1990년 이전의 전후 일본에 대한 이해, 과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사죄-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불신의 근원은 과거 식민지화 시기에 대한 피해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의 실상은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면, 일본은 혹독한 방식으로 수탈, 징용을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가혹한 일본상,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리의 불신이 재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이러한 이해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부 문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일본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들의 숫자는 2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5-6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인식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해방 50년 동안 우리의 교육은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고통을 받았었는가에 대해 강조하는, 하나의 피해자로서의 그림을 강조했었다고 생각한다. 에도 시대의 일본에 관한 인식, 50-60년대 일본이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지식은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 대한 인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침략적’ 일본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된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화의 작용 속에서 일본의 다양성, 복잡성이 가려지거나 은폐되는 일이 해방 이후 50-60년대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역사는 사실을 말한단기 보다, 역사의 매우 많은 부분은 선택되는 것이다.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식민지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취사선택 이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우리의 50-6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었나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는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90년대 이후 한국에 널리 알려진 3가지 문제(독도, 야스쿠니, 정신대 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일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일면적인 측면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차 분노를 키우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일본의 우파들의 움직임 역시 90년대 이후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전후 일본은 반성하는 일본으로 출발했다. 이른바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반성하고, 전쟁금지의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 애국의식은 매우 비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심지어 전쟁이 나도 일본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되겠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 일본의 우파라고 할 수 있다.

92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발한 우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의 우파가 전면에서 강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계기이다. 지금의 우파의 모습은 반성하는 일본과 사죄하는 일본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것은 과거의 일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후 50년간 우리가 과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친일파를 비롯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존재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의 비판은 일본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는 비판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하는 비판을 들어보면,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고 느낄 표현들이 난무한다. 원숭이, 핵을 일본에 떨어뜨려야 한다든가, 일본 열도가 가라앉아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많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연자도 일본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지만, 이러한 여지를 주지 않는 비판보다는 어떤 식으로 일본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구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이 사죄를 안한다, 사죄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 말하자면, 비록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사죄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죄라는 사실에 대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다른

형식으로라도 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보상하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15년간 투쟁해 왔으나 아직 미해결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요구하는 많은 보상을 일본이 완벽하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식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을까. 아마도, 거의 확신에 가까우나, 일본은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사죄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죄가 어쩔 수 없는 사죄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독일처럼 사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천황이 국립묘소에 참배해도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담론의 생산을 해온 사람들은 다시 그런 식의 불신감을 재생산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까지의 불신이 문제인 것이다.

사죄라는 것은 사죄하는 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죄 받는 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사죄와 불신의 과정을 봤을 때,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죄인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그런 식의 논리는 조건부적인 교환논리이며, 경제적인 논리라고 말한다. 문책이나 처벌은 용서와 다른 일이다. 처벌을 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원칙적으로 법과는 이질적인 것이며, 법과 환원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는 용서, 사죄, 화해의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며, 용서하는 힘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죄인을 이해할 때, 이미 용서는 시작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알력이 있더라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런 행위의 욕망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일본 내에서도 과거 청산에 관한 논의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도 친일파와 같은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친일파의 청산, 척결의 욕망은 우리 안의 오점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시키는 일이다. 통일 문제에서도 과거청산의 문제는 있고, 한국전쟁에서도 위안대가 경영된 적이 있다. 빨갱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 대상을 삼았으나, 만약 그들이 보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역시 역사의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전쟁터에 가장 참혹한 일을 했다는 병사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고백하는 일이 있다. 중국에 억류되어 수용소 생활을 당했던 사람들이 중국의 관용이 과거의 엄청난 참혹했던 과거를 고백하게 했다고 한다. 용서와 사과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일본의 우파도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과거의 양심적 일본인들이 우파의 주장에 현혹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너무 몰라준다는 반발심에, 우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의 모순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 동안 식민주의를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주장 아래, 서로가 서로에게 과거에 대한 고발 등을 해왔는데, 이것으로는 정작 식민지화한 우리자신을 대상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식민지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역사의 왜곡의 결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